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  
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물러서지 않는 마음 한시도 떠나지 않아야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 법을 믿으려 다니기 때문에 여기 이 집에 왔다고 하실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한 생각, 행동 하나, 한 발자국을 다 따져본다면 하나도 진리에 관한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고,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한도량인 것입니다. '한' 이라든 전체를 말합니다. 예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전 우주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다고요. 이 세상에 죽은 세상 산 세상이 다 가설이 되어 있어서 그 의식 자체가 전부 근본에 가설이 돼 있고요. 그래서 모두 공생 공용 공제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두어서 광력 자력 통신력 전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말해서, 하늘을 받치고 땅을 딛고 그대로 원을, 전체를 같이 굴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백지를 알아야 붓대를 굴릴 수 있고, 붓대를 굴릴 수 있어야만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을 한 발로 디뎠다고 하는 것은 평발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도량을 디딘 거죠. 전체를 받치고요. 전체를 굴리고요. 그래서 불바퀴는 그대로 영원한 걸 말하고 불바퀴는 지혜를 말하고 불바퀴는 즉 말하자면 대권(大權)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대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허명무실한 게 아닙니다. 지비의 대권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안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주의해야 할 상황, 이런 것을 오늘은 좀 얘기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생명들의 의식이 주어져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몸 바깥에도 자력으로써 밀어내는 게 있고 밀어 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도 있고 어떤 혹성에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나고 들고, 든번 난번 교차해가면서 받아하는 게 있던 애깁니다. 그걸 세 가지 요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몸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밀고 당기고 밀어내고 하는 것이 있는 가 하면, 바로 든번 난번 이렇게 방어를 해서 지키는 게 있다 이겁니다. 지키는 건 뭐냐면, 레이더망에서 들이느냐 내느냐의 그 지키는 관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을 때 이 레이더망에, (머리를 쫓아 보이시고) 즉 누진통(漏進通)에 직결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벨을 눌러서 은통 집안 식구들을 다 모으듯이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의식 자체가 전부 쏟아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안에서 나가는 것 이 걸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서로 순환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오로라'라고 이름 짓고 있다는 애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땐 모습 없는 의식 자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습 없는 의식 자체가 한 생각에 만 개가 되느냐, 천 개가 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하나도 없거나지느냐. 이거는 바로 작용에 따라서 그렇게 생기고 일어나고 즐고, 일어나고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바깥의 생명들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깥의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안에서 일어나서 나가고 바깥에서 일어나 들어오고 하는 그 과정이 있고, 안에서 일어나서 그 그냥 대처를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면서 남을 만나는데 상황에 따라서 싸움도 할 수 있고, 상황이 따라서 좋게 화하게도 할 수 있고, 돈을 받고 그냥 치우는 것도 있고, 서로 좋게 해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권은, 대권은 누가 가졌느냐. 여러분에게 직결돼 있는 근본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글방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믿는 마음에 따라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은 자신을 믿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행을 하는 거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돼서 말을 하는지 어떻게 돼서 한 발 한 발 떼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말입니

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즉 말하자면 화두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인공도 있는 것이요. 상대도 있는 것이요. 세상도 있는 것이요. 모두 이틈들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발견하고 의식에서 벗어나면 되는 줄 알지만 의식에서 벗어나도 자기 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게 막혀서 그거는 상관을 하지 말아야죠. 자기 지혜를 넓혀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가오는 자기 공부 재료를 막고 '나는 이런 거 싫다.' 이라는 거 거든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하나 놓고 가면서 어떠한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그냥 놓고 가거나, 그냥 놓고 가라. 그 근본에다 놓으면 다 된다. 더 위로 올라가서 내가 더 알리고 하지도 말고, 더 내려가서 모르지도 마라. 오직 거기 근본에 직결되어 있는 그 자체에만 놓는다면 그대로 한생각에 가정의 12대 존승까지도 모두 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생각에서, 무슨 돈을 들어서 많이 차려놓고 하는 것보다도 한생각에 하는 게 제일 빠르다. 빠르다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고 그저 남한테 기대고 말입니다. 모두 여러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남한테다 의존하는 마음도 생깁니다만 의존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야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고 세계를 거를 수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보람을 느낄 텐데...

“부처님!” 하면 벌써 이거는 공생(共生)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개별적인 여러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인공' 하면 포괄적인 주인공이지 어째서 개별적인 주인공입니까? 하나 얘기할까요? 작게는 여러분의 속에 들은 의식이 전부 한마음으로 합쳐진 모임의 장소 한생각일 것이고, 두번째 죽은 세상 산 세상이나 현재 한마음의 근본이 한데 합쳐지는 포괄적인 주인공이죠. 첫째도 포괄적이요 둘째도 포괄적이요 셋째도 삼천대천세계가 한데 포괄적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데 돌아가는데 지금 마음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동시에 여러분이 '내가 몸이 없다.' 이했을 때는 포괄적인 데서 개별적으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것을 입을 축이려고 해도 포괄적으로 돌아가야만 이 목을 축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공덕이다 이겁니다.

지금 내가 경고한다고 한 거는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얼른 안 나서 그러니까마는 여러분이 지금 주인공을 믿고 이렇게 찾고 그러는데, 찾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본래 있으니까 발견하라' 이런 소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모순이 있는 나 하면, 여러분은 주인공을 머리로 굴리려고 한 다 이겁니다. 내가 이번에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

에 가서 춤을 추한다고 춤을 추시겠습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춤을 춰라.' 주인공에서 그런다고 하면 '허허!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테스트해보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좀 이렇게 다시 굴러서 되놓을 줄은 왜 모르느냐 이 소립니다. 그렇다면 여기 와서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노예가 돼서 그냥 살지. 이렇게 노예짓을 하나 저렇게 노예짓을 하나 마찬가지로인데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머리로 굴리지 마라.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 하는 거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대로 하는 건 노예생활로 접어드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가정에 가지 말고 다 스님이 되십시오.' 그러다보면 여러분 다 스님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약으셔서 '몸은 비록 이렇게 속해 있으면 나 마음이야 스님과 저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아주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이 깊게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대한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내가 든든하더라도 한 번 더 딛고 한 번 더 흔들려보는 그런 조심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믿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지나가나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나 손을 한데 모으고 자다가도 일어나

요. 그렇게 수효가 많은 이름을 가졌는데도 전부 자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죽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때는 그냥 얼굴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오는 분들도 여러 분 보죠. '에이, 저건 마음 한 번 들리면 저 속에서 전부 의식들이 그냥 한마음이 돼주어서 파워 일으켰던 것 다 원활하게 만들고 또 세포가 부패했던 것이 모두 원활하게 되면 저 얼굴이 그냥 빨갛게 하얗게 될 텐데.' 이렇게 아쉬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고 상대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나지 않고 무슨 부처가 필요 있고, 무슨 이 세상이 필요 있고, 상대가 필요 있고, 사랑이 있으며 의리가 있고 도의가 있겠습니까?

날더러 어떤 사람은 부처님 법을 설하지 말고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짜지 남이 해놓은 거 읽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해드려야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한다구 싫다구 그러면 그만이지 아니. 내가 뭐 굶이 비웠습니까? 싫다구 그러면 그만이지.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그 정신을,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품통이를 가지고 있고 눈 코 달린 것도 같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 차이입니다.

오늘 내가 또 한 가지 말해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오로라'라는 의식과 안에서 일어나는 것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바깥에서 바로 자력으로써 밀어내고 당기고 하는 그것과 또 방어를 하는 그런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방어를 하는 거는 두뇌에서 모든 걸,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서 일어나서 들어오는 거를 연방 제시한다고 그럴까요? 통신한다 그럴까요? 그러면 안에서 일어나서 막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것도 영계의 문제라든가, 세균의 문제라든가, 유전의 문제라든가, 일본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대동소이합니다. 작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치어느냐, 여러분이 승리하느냐의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성이 없으면 진리라고 이름도 붙였을는지도 모르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도에 따라서 항상 나눌 때가 있더라 또 같이 할 때가 있고, 유능하게 지혜 있게 굴러야 될 텐데 그거를 아차, 수습을 못 하면 그 지경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고걸 잘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나 보세요. 내가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잘못됐을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하다가 가면 가고 말면 말지 하는, 아예 그냥 다 버렸기 때문에 이만이라도 하지 전 만약에 버리지 않았다면 되게 걸렸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고난이 일초에 그냥 막 한한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거를 아주 무겁게 놓고 기다리시고 지켜보셔야지 만약에 그걸 지켜보지도 않고 그냥 방방 뚫다면 아주 어지러운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거기다 놓고 그냥, 모든 것을 거기 맡겨 놓고 있으면 스스로서 그냥 굴러져서 스스로 평화스러운 게 옵니다. 가정에도 모든 게, 그런데 주인공을 발견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땐 더 터무니없이 야단법석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더 못됐어요. 오히려 거기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말입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떡하나 볼 양으로 그러는 거를 거기 속까지근 자꾸 일어나니까 그거는 안 하니만 못하고, 옆의 사람들과 통만 주게 되고 자기가 고스트럽고, 외려 명주율이 전부 묶여 돌아가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묶이면 보이지 않는 데서 풀어야 할 텐데, 보이지 않는 데서 오히려 묶어놓는 형상이 된다 이겁니다.

부처님의 마음, 마음자리 골수를 보려면 여러분의 골수를 알아야 부처님의 골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 마음의 도리를 모르다면 어떻게 부처님께서 일신(日新) 오백 개를 한데 합쳐서 삼천대천세계에 굴러서, 요리를 만들어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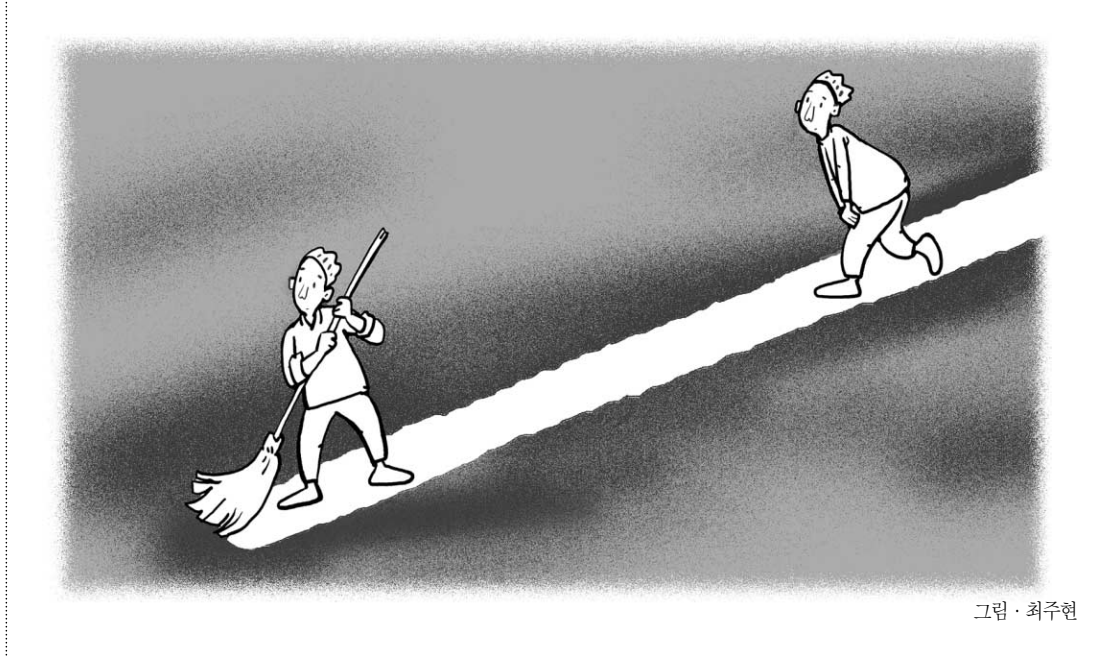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자기한테 본래 있으니까 발견하라

한다는 애깁니다. 의존하는 생각이 있다면 모든 게 비틀어지고 모든 게 속상하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고, 불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비참하게 되고 나는 나대로 더 힘이 줄어들고 병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거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절대적으로 아주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더욱더 그것은 자기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수만 번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경험을 스승 삼아서 오로지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날까지 내가 손을 이렇게 한테 모으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한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내 양심입니다. 양심에 관계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애원하고 여러 식구를 등에 업고서 곁을 돌아 떠나는 모습이 무척하면서 '여러분은 이 자기 자신의 자성을 알고, 의식에서 벗어나고 몸에서 벗어나고 진리 속에서, 떠돌리지 않아야 여러분은

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굴리는 경향이 즉 30%, 20%는 되더라 이겁니다. 머리는 쉬게끔 내버려두고 마음으로써 뜻을 가져라 이겁니다. 믿음의 뜻! 뜻으로 내고 들이고 하는 거지 머리로 굴린다면 머리가 고장이 나요. 머리로 굴리는 게 아니라 믿는 것도 마음이요, 굴리는 것도 마음이요, 들이고 내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에 다 하면 절대로 고장이 나질 않습니다. 머리로 굴리니까 머리로 산발이 돼서 바깥으로 내뺀다고 머리 가 도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 다 많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편 짓들을 하고 말입니다.

옛날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주인공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간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온다.' 요런 소릴 하는데 말입니다. 그때 주인공이 나가려고 굴리는 놈도 그놈이요, 지켜보는 놈도 그놈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서 누(禿)가 될 일이나, 누가 안 될 일이나? 이것을 잘 보고, 내가 이익할 거냐, 이익하지 않을 거냐? 이것을 해서 내야 보기가 좋은 거냐, 보기 나쁜 거냐 하는 걸 잘 보아야지. 그런데도 무조건 주인공이 하란다고 나가서, 바깥

서 그 몸짓 밟지 하는 거, 난 살단 말이예요. 왜? 귀신입니까? 아주 진득하고 무겁고 이 세상을 다 들어서 놓는 것처럼 무겁게 한마음 뜻으로 놓는다면, 이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마음 그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머리로 굴리지 않는다. 모든 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놓는다. 믿고 물러서지 않는다. 그건 개별적인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라는 것을 안다. 근본이다.' 이런 거 말입니다.

벌써 상심으로 생각을 해도 알겠지만 이 몸에 들은 의식 자체들이, 모습 자체들이 생명 자체들이 나와 나와 들어 아니다. 그러곤 한마음으로 이렇게 해준다면, 한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이나 공장장이나 전부 우리는 한 도반으로서 한식구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서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런다면 아, 누가 뭐람입니까? 누가 싸워요? 그러면 내 몸 안에 들은 의식들이 파워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파워를 일으켰다가도 그렇게 다 갖다가 한마음으로 놓는다면 거기에서 '어, 난 죽을 수 없어.' 이겁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순 없거든요. 자기니까, 곧바로 자기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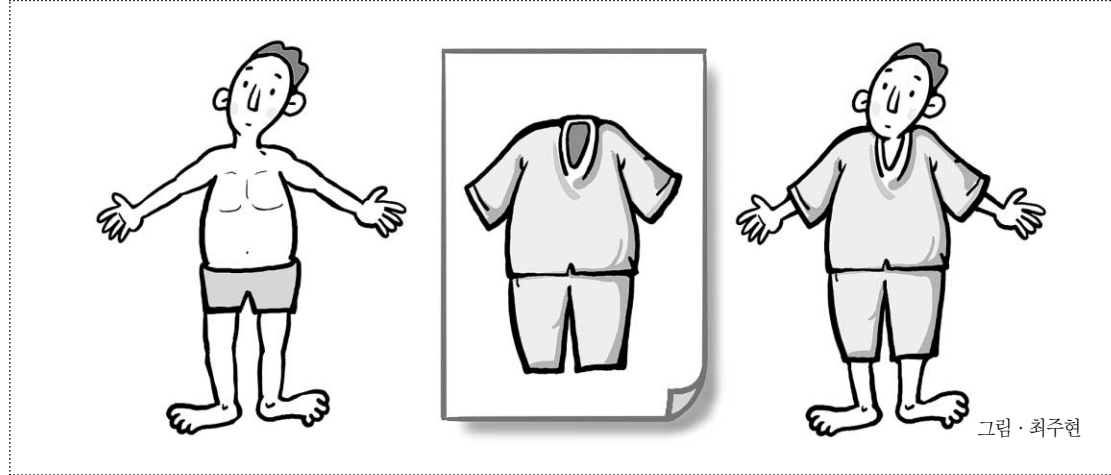
29면에서 계속

여준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성신, 즉 말하

오늘 내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이거는 잘못

그러기 때문에 이끌어주는 스승이 필요하다 이



머리는 쉬고 마음으로써 뜻을 가져라

늘이 되듯이, 그렇게 말을 해주었으니까 나도 책

내가요, 그런 말 하면 칭찬하기 때문에 술집 것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좋아서, 네가 나 좋아하 따라다녔지 내가 너 좋아

그러서 여러분이 돈 있는 거는 그저 자식들이

그리고 한마디만 하였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

그러니까 생활의 상황,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글리고 돌아가고, 잘 완회시킬 건 완회를 시키고

그리고 또 급하면 '스님,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

그러니 산 부처의 일이라는 것이, 죽은 부처의

그러니까 생활의 상황,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깝데기 알맹이, 이것을 들로 보지 마시라 이겁니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하십시오. 신행회

어느 학생이 얼마한테 그 소리를 가끔 들었대

이것이 참,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러라도 그렇게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불자님을 모십니다. Size: 67 X 54 (Cm). Size: 54 X 82 (Cm). 남도 변해가는 세파 속에서 바쁘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상임 연구원 초빙 공고. 학교 법인 한국 불교 학원 · 재단법인 능인 불교

관절염 전문. 자생환(自生丸).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당뇨. 당치 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